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결과 분석과 전망

2014. 4

통일정세분석 2014-02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결과 분석과 전망

2014. 4

박영자 (북한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박형중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임강택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서론	1
II. 정치분야	3
1. 당우위 체계의 복원	3
2. 대의원 구성은 안정성을 강조	4
3. 최고인민회의 지도부 구성에서 선전선동 전문가 보강	5
4. 국방위와 내각 인사의 특징	6
III. 경제분야	9
1. 주요 특징	9
2. '13년 결산 특징	9
3. '14년 수입계획 특징	10
4. '14년 지출계획 특징	12
IV. 전망 및 남북관계 합의	14
1. 특이사항과 전망포인트	14
2. 향후 북한의 정책방향과 남북관계 합의	15
부록	17

표 목 차

<표 1> 제13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선거 결과	6
<표 2> 제13기 제1차 회의 국방위원회 선거 결과	7
<표 3> 제13기 제1차 회의 내각 지도부 개편 결과	7
<표 4> 2009~2014년 북한의 예산 및 결산 발표 내용	10
<표 5> 2009~2014년 북한의 주요 부문별	11
예산 수입계획 증가율	
<표 6> 2009~2014년 북한의 부문별 예산 지출계획 증가율	13

부 록 목 차

부록 1.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 국방위원회	17
제1위원장 추대 전문	
부록 2.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 진행 과정	20
부록 3.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 주요 선거 및	26
임명 결과	
부록 4. 2013년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2014년 국가예산	29
부록 5.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32
보고내용	

I. 서론

- 최고인민회의의 한계와 의의
 - 5년 임기인 대의원들은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와 간부부가 중심이 되어 선출하고 주민은 찬반 투표로 100% 찬성
 - 최고인민회의가 예년과 같이 진행되었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국가시스템이 적어도 표면상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 가능
 - 국가예산의 수입·지출을 매해 보고 및 결정하므로, 국가자원분배와 그 시계열적 추이를 통해 정책의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는데 유용

- 김정은 정권 들어서 김정일 정권에 비해 회의가 제도화되는 모습
 - 김일성 정권에서는 회의가 통상 1년에 두 차례 개최
 - 1998년 후 김정일 정권에서는 2003, 2010년을 제외하고 매년 1회 개최
 - ※ 2003년은 3월 상반기 정기회의 후 5년의 대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선거를 치러 9월 제11기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했기 때문
 - ※ 2010년은 화폐개혁 여파를 처리하기 위해 두 차례 개최
 - 김정일은 국가예산만을 주로 다루는 경우 참석하지 않아서 격년으로 참여한 양상
 - ※ 불참 사례로 제10기 제6차 회의(2003.3.26.), 제11기 제2차 회의(2004.3.25.), 제4차 회의(2006.4.11.), 제6차 회의(2008.4.9.), 제12기 제2차 회의(2010.4.9.), 제4차 회의(2011.4.7.)
 - 김정은 정권 들어서 '12년 2회, '13년 1회, 금번 회의 모두 김정은 참석

- 2014.4.9.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정은 정권 집권 이래 처음 구성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가 개최
 -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헌법상 대표 국가기구로 헌법 수정, 조직 및 인사 문제, 국가예산 수입·지출 예·결산, 대·내외 정책방향 등을 다룸.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으며 연 1~2회 개최¹⁾

- 금번 회의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재추대, 국가지도기관 선거 및 임명 (조직 및 인사), '13년 국가예산 집행과 '14년 국가예산 결정(예·결산)
 - 헌법 개정·국가기구 개편·대외정책 관련 주요 안건은 다루지 않음.
 - 조직 및 인사 문제도 장성택 숙청 여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 이번 제13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의 의의
 - 명실상부한 김정은 정권의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게 될 제13기 대의원체제(2014.4.~2019.3.)를 구축하였다는 점에 의미
 - 국가조직을 새로이 정비했다는 측면에서 세부적 분석과 정책적 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 대개 3~4월 개최되는 상반기 정기회의는 전년도 사업정형 및 당해 연도 과업 보고, 전년도 예산결산 및 당해 연도 예산심의에 주안점을 두고, 9월의 하반기 정기회의는 주요 인사 및 조직개편, 법안 개정 등 당면의제를 논의

II. 정치분야

1. 당우위 체계의 복원

- 김정일 시대와는 달리 최고인민회의 개최 이전에 당중앙위 정치국 회의를 개최

- 당 주도 정책결정 시스템의 구축은 김정일 사망 이후 2014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옴.
 - 김정일 사망이 공식 발표된 2011.12.19. 직후 당중앙위 정치국 회의(2011.12.31.)를 개최하여 김정은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
 - 이어진 정치국 회의(2012.1.12.)를 통해 김정일 시신 금수산 궁정 안치, 김정일 동상 건립,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을 광명성절로 제정, 전국 각지 김정일 태양상과 영생탑 건립 결정
 - '12년 2월 20일 정치국 결정서로 당대표자회를 2012년 4월 중순에 소집할 것 공표한 데 이어, 3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제12기 제5차 회의를 '12년 4월 13일 평양에서 소집할 것을 공표
 - 이후 제4차 당대표자회(2012.4.11.)의 주요 결정사안을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2012.4.13.)에서 추인
 - '13년 3월 31일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주요 법령 개정과 정책노선, 조직개편 결과를 제12기 제7차 회의(2013.4.1.)에서 추인

- 당중앙군사위원회(2014.3.17.)와 당중앙위 정치국 회의(4.8.)에서 조율된 ‘조직문제’ 결정을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4.9.) 회의가 추진
 - 김정은 당 제1비서가 참여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3.17.)에서는 전군에 당의 유일적 영군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문제 등 장성택 숙청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 대의원 선거(3.9.) 후 당중앙위 정치국 회의(4.8.)를 진행하여 당의 영도적 역할과 기능을 높이기 위한 기구보강 문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에 제출할 국가지도기관 구성안, 조직문제 등을 토의
 - 두 차례 당 회의를 거쳐 당을 중심으로 하는 김정은 통치체계의 구축작업 마무리

2. 대의원 구성은 안정성을 강조

- 김경희 퇴장설과 최룡해 입지 강화 외에 큰 변화가 없는 안정추구형 세대교체 단행
 - 2012년 김정은 정권 등장시기와 유사한 평균연령 70대인 고령의 파워엘리트 지속
- 측근세력·4~50대·엘리트들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노장청 배합·직업·성비·권력기관 안배를 고려한 대의원 구성이 주요 특징
 - 김일성훈장과 김일성상·김정일훈장과 김정일상 받은 관료 30.2%, 공화국영웅, 노력영웅칭호 받은 관료 14.6%, 교수·박사를 비롯한 학위 소유자들 및 과학자·기술자·전문가들이 91.7%
 - 39살 이하 3.9%, 40~59살까지 66.9%, 60살 이상 29.2%이며 대의원의 94.2%가 대학 졸업 정도의 지식 소유

- 김일성과 함께 항일투쟁을 했다는 원로와 6·25전쟁 수훈자들, 군인 17.2%, 노동자 12.7%, 협동농장원 11.1%, 여성 16.3% 당과 국가기구의 주요 간부 및 조총련 간부들로 구성

3. 최고인민회의 지도부 구성에서 선전선동 전문가 보강

- 교육·문화·이데올로기 전문가들로 선전선동을 주도할 최고인민회의 의장(최태복 유임)·부의장(안동춘, 리혜정 신임) 선거
 - 2014년 신년사에서 밝힌 선전선동의 사상전을 주도할 수 있는 인물들
 - 최태복은 당과학교육 비서로 오랜 교육 전문가
 - 안동춘은 문화성 상 및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출신으로 문화예술 전문가
 - 리혜정은 사회과학원 원장 출신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제일 먼저 선전했다는 이데올로기 전문가
- 기존 부의장 김완수, 홍선옥을 해임하고 최고인민회의 의장 위임을 통해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선전선동의 사상전을 주도할 수 있는 부의장 신임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에서는 원로에 대한 예우에 노력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명예부위원장·서기장 모두 유임
 - 위원들 중 김양건, 전용남, 현상주, 리명길, 류미영 5인 유임

<표 1> 제13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선거 결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 부위원장: 양형섭, 김영대	위원(11명) 김양건, 태종수(신임), 전용남, 현상주, 리명길, 김정순(신임), 김완수(신임), 류미영, 강명철·강수린·전경남(신임) * 5인 유임, 6인 신임
	김영남 (유임)	- 명예부위원장: 김영주, 최영립 - 서기장: 홍선옥 * 모두 유임	

4. 국방위와 내각 인사의 특징

- 김정일의 ‘영원한 국방위원장’ 위상을 지속하고 국방위 제1위원장 김정은 재추대의 사상·이념적 의의 강조 및 독재의 국정운영 정당화
 - ‘김일성·김정일 조선’의 국가정체성 강조
 - 선군정치 지속과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는 단결을 역설
 - ※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의지를 과시한 역사적 사변”
- 국방위원회 선거에서는 최룡해의 지위 부상과 선군정치 집행할 신진 군부엘리트 중심의 국정주도세력의 슬림화
 - 국방위 부위원장 김영춘 해임과 최룡해의 부위원장 승진
 - 기존 국방위 위원 중 김격식·주규창·백세봉 해임과 장정남·조춘룡 신임 및 최룡해 승진으로 국방위 위원 7명 → 5명으로 축소

<표 2> 제13기 제1차 회의 국방위원회 선거 결과

영원한 국방 위원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김정일	김정은 (재추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룡해(신임, 위원에서 부위원장으로 승진, 인민군 총정치국장·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직) - 리용무(유임) - 오극렬(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정남(신임, 인민무력부장) - 박도춘(유임,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 김원홍(유임, 국가안전보위부 부장) - 최부일(유임, 인민보안부 부장) - 조춘룡(신임, 미사일 총책 및 내각군수 산업 담당 제2경제위원장 추정)

○ 내각의 간소화와 효율성 추구

- 내각 총리(박봉주)의 유임을 포함하여 소규모 인사 및 조직 개편 단행
- 효율성 높이기 위해 경제지도부 급인 내각의 부총리를 9명 → 4명으로 축소

<표 3> 제13기 제1차 회의 내각 지도부 개편 결과

내각 총리	부 총 리
박봉주 (유임)	로두철(국가계획위원장 겸직), 김용진, 리무영(화학공업상 겸직), 리철만(농업상 겸직) * 부총리 9명에서 4명으로 축소 유임 ※ 외무상 : 리수용, 원자력공업상 : 리제선

○ 내각 인사에서 관찰된 특이사항

- 외무성상이었던 박의춘이 해임되고 리수용 신임

- ※ 리수용은 스위스대사 출신으로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시절부터 김정은과 김여정 등을 후견하였고, 통치자금인 스위스 계좌를 오래 관리해 왔다고 알려짐.
- 김경희 관할 하에 있던 경공업상이 내각성원 구성에 포함되지 않아 경공업성의 폐지를 포함하여 경공업 관련 정책의 변화 가능성 시사
 - ※ 향후 경공업 관련 북한 당국 발표를 주시하면서 추적할 필요
- 원자력총국이 원자력공업성으로 승격되고 리제선 임명
 - ※ 리제선은 북한 원자력계의 대부로 핵 전문가
- 김승두 교육위원장 겸 보통교육상 외에 태형철 교육위원회 고등교육상을 추가 임명하면서 교육위원회 강화
- 그 외 임업성·중앙통계국·중앙은행 수장 교체 외에 각종 위원회 장 및 성의 상들 유임
- 핵 협상과 대미외교 주도한 전 부총리 강석주는 전날 개최된 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4.8.)를 통해 김영일 후임의 국제담당 비서로 임명된 것으로 추정

Ⅲ. 경제분야

1. 주요 특징

- 김정은의 인민생활향상 담론을 확산하고 대중적인 충성심을 고취시키는 데 활용되는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2012년 이후 각종 인민시책비 세분화
- 지방의 재정수입 증대를 독려하고 생산 부문보다 부동산 등 각종 비생산적 원천으로부터 예산수입 증가 노력

2. '13년 결산 특징

- '13년 농업·건설 등 경제 → 교육문화 → 국방 순으로 지출
 - 전시성 건설 및 비료수입 증대 등 농업 및 경제 부문에 45.2% 지출
 - 사상 및 선전선동 강화를 위한 교육문화 부문에 38.8% 지출, 선군정치를 위한 국방비 16% 지출
- '13년 국가전체에서 지방예산 수입 비중의 증대
 - '13년 국가예산 수입계획 101.8% 수행, 그 중 지방예산 수입계획은 107.7% 수행
 - ※ 제12기 5차 최고인민회의(2012.4.13.) 시 발표한 2011년 결산 및 2012년 계획 보고에서도 국가예산에서 수입은 당초 계획보다 1.1% 증가했는데 예산수입 증가에서 지방예산 수입이 12.8% 증가한 점이 주요했음을 강조

3. '14년 수입계획 특징

- '13년 이후 예산수입 증가율 감소세
 - 북한의 물가상승률이 2010~2012년에는 매우 높았으나 2013년에 안정세로 돌아선 것과의 관련성 주목
 - 지출 감소세와 연동해 불 필요

<표 4> 2009~2014년 북한의 예산 및 결산 발표 내용

(단위: %)

연도	예산*		결산**	
	수입	지출	수입	지출
2009	105.2	107.0	101.7(107.0)	99.8
2010	106.3	108.3	101.3(107.7)	99.9
2011	107.5	108.9	101.1(108.6)	99.8
2012	108.7	110.1	101.3(110.1)	99.6
2013	104.1	105.9	101.8(106.0)	99.7(105.6)
2014	104.3	106.5	-	-

*: 예산의 수입·지출은 전년 대비 증가율

** : 결산의 수입·지출은 계획대비 달성률,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 부동산 등 지대를 통한 예산수입 증대 추진
 - 공식적인 생산증대보다는 부동산사용료 등 비생산활동 부문의 재정 수입증대 계획
 - ※ 부동산사용료는 2005년까지 없다가 제11기 제4차 회의(2006. 4.11., 김정일 불참)에서 국가예산수입 중 새로 편성된 수입 항목

- 예산수입의 감소분을 부동산사용료·경제무역지대수입·사회보험료·거래수입금·재산판매 및 가격편차 수입 등 비생산적인 국가권력의 가용자원(rents)을 통해 보충할 계획

<표 5> 2009~2014년 북한의 주요 부문별 예산 수입계획 증가율
(단위: %)

연도	국가기업 이득금	협동단체 이득금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부동산 사용료	사회 보험료	거래 수입금
2009	5.8	3.1	6.1	3.6	1.6	-
2010	7.7	4.2	2.5	2.0	1.9	-
2011	-	3.8	1.4	0.7	0.4	-
2012	10.7	5.3	2.3	1.9	1.7	7.5
2013	6.0	5.3	2.8	3.4	-	3.5
2014	7.9	4.8	-	9.5	5.1	4.5

출처: 북한의 각 연도 예·결산 관련 발표 내용

- 부동산사용료와 사회보험료의 수입 증가율을 예년에 비해 높게 설정함으로써 최근 경제활동의 변화 추세를 반영
 - 부동산 사용에 대한 기관·기업소 및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활용을 일부 허용하면서 부동산 사용의 효율성을 강화
 -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진 근로자 임금수준의 증가를 반영하여 사회보험료 수입계획을 높게 책정한 것으로 추정
- '14년 수입증대 계획 발표하며 지역단위 자력정책 강화와 중앙예산에 기여 강조
 - '12~'13년에 이어 '14년에도 지역의 재정 부문에 대한 역할을 강화할 전망

- 지방예산 수입과 지출은 도·시·군들이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할 뿐 아니라 수입금을 중앙예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최근 군(郡) 단위 재정 강화 강조

4. '14년 지출계획 특징

- 체육 부문 지출이 가장 높은 증가율, 17.1% 기록('13년 6.1%)
 - 이는 시장화 등으로 약해진 북한주민들의 집단주의 이념 및 행동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반면에 사회복지 지출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보건 102.2%,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101.4%, 문화 부문 101.3%로 '13년 대비 지출 증가율 축소
 - 새로운 경제관리방침으로 알려진 6·28방침과 연계되어 인센티브 제도 실험 및 월급을 인상시키는 대신 세금인상 및 각종 사회복지 제도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을 가능성
- 과학기술 103.6%, 인민경제 선행 부문(전력, 석탄, 금속공업, 철도운수)·기초공업 105.2%, 교육 105.6%, 기본건설 104.3%로 '13년 대비 지출 증가율 축소
 - 인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1차 산업과 각종 서비스업인 3차 산업에 비해 기간산업 중심의 2차 산업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려남.

- 국방비·농업 등 1차 산업·경공업 부문은 '13년 대비 지출규모 유지
 - 국방비 지출 규모는 15.9%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예산 지출총액의 15.8~16.0% 규모 유지, 특히 국방비는 '13년 대비 1% 축소되었으나 '14년 전체 지출 106.5% 증대에 대비하면 총액 상으로는 다소 증가
 - 농업·축산·수산 부문 105.1%, 경공업 105.2%로 '13년 지출계획 증가율과 유사

- 특이한 사항으로 2000년대 이후 최고인민회의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조총련 지원이 공식화된 점
 - 북·일 관계 및 대외정책 활용 등을 의식한 조총련 간부 재생산 지원 비용으로 추론 가능

<표 6> 2009~2014년 북한의 부문별 예산 지출계획 증가율

(단위: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인민 경제 사업비	농업 (축산·수산 포함)	6.9	9.4	9.0	9.4	5.1	5.1
	경공업	5.6	10.1	12.9	9.4	5.1	5.2
	4대 선행 부문	8.7	7.3	13.5	12.1	7.2	5.2
	과학기술	8.0	8.5	10.1	10.9	6.7	3.6
	기본건설	11.5	-	15.1	12.2	5.8	4.3
인민 시책비 *사보: 사회보험·사회보장		-	6.2	-	교육: 9.2 보건: 8.9 사보: 7.0 체육: 6.9 문화: 6.8	교육: 6.8 보건: 5.4 사보: 3.7 체육: 6.1 문화: 2.2	교육: 5.6 보건: 2.2 사보: 1.4 체육: 17.1 문화: 1.3

IV. 전망 및 남북관계 합의

1. 특이사항과 전망포인트

- 권력 동향 관련
 -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
 - 장성택 숙청의 후속 여파 최소화
 - 원로, 40~50대 중견 간부, 정치성분 우수자 등 우대
 - 최룡해를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중용,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총리 유임

- 정책 동향 관련
 - 특별한 정책 언급이 부재하는 것은 지속성 시사
 - 원자력 개발 중시(원자력 총국을 원자력공업성으로 승격)
 - 체육 부문 지출 증대 예견(2013년 106.1%에서 2014년 117.1%)
 - 생산 증가로 인한 조세 증대보다는 임대료 수입에 중점(부동산 사용료, 경제무역지대 수입, 사회보험료 등의 수입 증가)

- 사상 동향 관련
 - 김일성·김정일 조선, 선군정치 지속, 김정은 중심 단결, 김일성 가계 지배 정당화

- 전망포인트
 - 지대를 둘러싼 김정은의 수령경제 관리와 통치자금 마련 양상
 - 각 단위 권력기구와 당·정·군의 이권경쟁

- 자원 수취와 배정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 간 갈등 전개 양상
- 장성택 숙청여파 봉합 과정과 그 이후 후과 발생 가능성
- 2인자 최룡해와 그 계열의 행보
- 최룡해와 그 계열에 대한 김정은 및 원로세력 또는 제3세력의 견제 행태
- 국가예산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경제실험의 양상과 파급 효과
- 국가재정지출의 증감 여부

2. 향후 북한의 정책방향과 남북관계 함의

- 김정은식 권력 체계 정립으로 당분간 내부 정치 안정
 - 국경통제 및 내부 단속 강화
 - 이러한 동향은 경제 건설 논리와 배치
- 핵무력 건설을 우선하기 때문에 경제건설 노선 차질 예상
 - 그러나 수입 증대를 위한 경제실험을 지속할 듯
 - 4차 핵실험 위협, 2013년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 시설 확충, 장거리 미사일 기지 확충 등
 - 이러한 정책방향은 경제건설보다 핵 보유 능력 과시가 우선시함을 표출
- 4차 핵실험 위협 및 드레스덴 선언 거부로 남북관계 난관 예상
- 남북 양측 동계 훈련이 4월 하순에 종료하면, 대남 고위급 회담 제안 가능성 존재

- 중국 주도의 6자회담 개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북한의 비핵화 선행 조치 거부로 6자회담 개최 난망

부록 1.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전문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

『조선중앙통신』, 2014년 4월 9일.

전당,전군,전민이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선군조선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장엄한 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 있는 역사적 시기에 소집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회의는 온 나라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일치한 의사와 념원을 담아 비범한 사상리론적 예지와 특출한 정치실력, 만사람을 매혹시키는 고매한 인품을 지니시고 조국과 인민을 승리와 번영의 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였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또다시 높이 모신 역사적인 시각 전체 대의원들과 회의참가자들은 다함없는 경모와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축하를 드리였다.

선군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백승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 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만방에 빛내이며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민족사적대경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한 것은 한없이 숭고한 도덕의리로 수령영생위업 실현의 새 장을 펼치시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나도록 하시였으며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공화국의 유일무이한 지도사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켜 선군혁명의 새로운 승리의 년대기를 빛내여 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모신 것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단결의 유일중심,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의지를 과시한 역사적사변으로 된다.

전체 회의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안고 그이의 참된 혁명동지, 전우가 되어 선군혁명의 한길을 역세게 걸어갈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어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은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하고야말 것이다. (끝)

부록 2.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 진행 과정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 4.9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

『조선중앙통신』, 2014년 4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가 4월 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새로 선거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과학, 교육, 문학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이 회의에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공화국을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로 만방에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열광적인 박수를 터쳐올리었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최룡해동지, 리영길동지, 장정남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박도춘동지, 양형섭동지, 최영립동지, 강석주동지, 리용무동지, 김원홍동지, 최부일동지, 김양건동지, 김평해동지, 곽범기동지, 오수용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 태종수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주석단에 자리를 잡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영원한 주석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백두산대국의 영상이시며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회의에서는 양형섭대의원이 개회사를 하였다.

개회가 선언되자 애국가가 주악되었다.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부의장들을 선거하였다.

의 장 최태복대의원

부의장 안동춘대의원

부의장 리혜정대의원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였다.

위원장 김평해대의원

위 원 박영식대의원

위 원 강필훈대의원

위 원 리만건대의원

위 원 차용명대의원

위 원 김영호대의원

위 원 김형남대의원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 의안을 결정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지도기관 선거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2(2013)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03(2014)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이 토의되었다.

김형남대의원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추대하는 연설을 하였다.

그는 전당,전군,전민의 총의를 반영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의를 최고인민회의에 정중히 제기하였다.

김정은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시려는 전체 조선로동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절절한 념원이 담긴 제의는 전체대의원들과 참가자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회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였음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순간,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회의장을 진감하였다.

회의에서는 둘째 의정이 토의되었다.

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서기장,위원들을 선거하였다.

회의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하였다.

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를 선거하였다.

회의는 내각총리 박봉주대의원이 제의한 내각성원들을 전원찬성으로 임명하였다.

회의는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하였으며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하였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들인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가 선거되었다.

내각총리 박봉주대위원이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보고를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김평해대위원이 하였으며 이를 승인 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셋째 의정이 토의되었다.

재정상 최광진대위원이 보고를 하였다.

리철만대위원, 문명학대위원, 최상건대위원, 박태덕대위원, 허정옥대 의원, 송춘섭대위원, 이정숙대위원, 윤석천대위원, 김형남대위원, 리상관 대위원, 변응규대위원, 홍금선대위원, 조원택대위원, 정덕영대위원, 리경 일대위원이 토론하였다.

회의는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2(2013)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체103(2014)년 국가예산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최태복의장이 폐회사를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공화국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 위업을 앞당겨 실현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끝)

부록 3.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 주요 선거 및 임명 결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선거

『조선중앙통신』, 2014년 4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서는
국방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선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 부위원장
최룡해, 용무, 극렬. 위원 장정남, 박도춘, 김원홍, 최부일, 조춘룡 (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선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부위원장 양형섭, 김영대. 명예부위원장 김영주, 최영림. 서기장 홍선옥

위원 김양건, 태종수, 전용남, 현상주, 리명길, 김정순, 김완수, 류미
영, 강명철, 강수린, 전경남. (끝)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
최고인민회의·내각성원들·최고검찰소 소장과 최고재판소 소장 선거

『조선중앙통신』, 2014년 4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들인 법제위원회와 예산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선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장 최부일

위원 장병규, 박명철, 박태덕, 태형철, 차희림, 박명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 위원장 오수용

위원 박영호, 계영삼, 홍서현, 김희숙, 최영일, 박형렬. (끝)

.....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성원들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박봉주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 로두철, 부총리 김용진, 부총리 겸 화학
공업상 리무영, 부총리 겸 농업상 리철만

외무상 리수용, 전력공업상 김만수, 석탄공업상 문명학, 금속공업상 김용광, 철도상 전길수, 룡해운상 강종관, 채취공업상 리학철, 국가자원개발상 리춘삼, 원유공업상 배학, 립업상 한룡국, 기계공업상 리종국, 원자력공업상 리제선, 전자공업상 김재성, 체신상 심철호, 건설건재공업상 동정호, 국가건설감독상 권성호, 식료일용공업상 조영철, 수산상 리혁, 재정상 최광진, 로동상 정영수, 무역상 리룡남, 국가과학기술위원장 최상건, 국가과학원 원장 장철, 국토환경보호상 김경준, 도시경영상 강영수, 수매량정상 문응조, 상업상 김경남, 교육위원회 위원장 겸 보통교육상 김승두,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교육위원회 고등교육상 태형철, 보건상 강하국, 문화상 박춘남, 체육상 리종무.

중앙은행 총재 김천균

중앙통계국장 리승호

내각사무장 김영호 (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서는 최고검찰소 소장으로 장병규를 임명하고 최고재판소 소장으로 박명철을 선거하였다. (끝)

부록 4. 2013년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2014년 국가예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
2013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14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조선중앙통신』, 2014년 4월 9일.

9일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서 재정상 최광진대 의원이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체102(2013)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03(2014)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보고에 의하면 지난해에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새로운 병진로선에 따라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이 힘있게 벌여짐으로써 국가예산이 정확히 집행되었다.

국가예산수입계획은 101.8%로 수행되었으며 그 전해에 비하여 106%로 장성하였다.

지방예산수입계획은 107.7%로 수행되었다.

국가예산지출계획은 99.7%로 집행되었으며 그 전해에 비하여 105.6%로 늘어났다.

국가예산에서 지출총액의 16%를 국방비로 돌려 적들의 무모한 핵전쟁도발책동과 반공화국대결소동을 짓부시고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치는데 이바지하였다.

지출총액의 45.2%를 경제건설부문에 지출하여 자립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적 양양을 일으키며 건설에서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자금적으로 보장하였다.

지출총액의 38.8%의 자금을 교육과 보건,체육과 음악예술을 비롯한 문화건설부문에 돌려 인민적시책의 실시와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기여하였다.

올해 국가예산은 당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앞당겨 실현하며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수요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수입과 지출을 편성하였다.

국가예산수입은 지난해보다 104.3%로 장성하게 되며 그 가운데서 거래수입금은 104.5%, 국가기업리익금은 107.9%, 협동단체리익금은 104.8%,부동산사용료는 109.5%, 사회보험료는 105.1%,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은 102.4%,기타 수입은 101.7%,경제무역지대수입은 105.1%로 늘일 것으로 예견하였다.

국가예산에서 지방예산수입과 지출은 도,시,군들이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 수입금을 중앙예산에 들여놓을 것으로 예견하였다.

국가예산지출은 지난해에 비하여 106.5%로 늘이게 되며 그 가운데서 농업부문,축산부문,수산부문은 105.1%,기본건설부문은 104.3%,과학기술부문은 103.6%,인민경제 선행부문,기초공업부문과 경공업부문

은 105.2%,교육부문은 105.6%,보건부문은 102.2%,사회보험 및 사회보
장부문은 101.4%,체육부문은 117.1%,문화부문은 101.3%로 늘인다.

지출총액의 15.9%를 국방비로 돌리며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게 된다.

보고자는 올해 국가예산을 정확히 집행하는 것은 조국번영의 원대
한 이상과 목표를 향하여 년대와 년대를 뛰어 넘어 대비약을 일으켜
나가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장엄한 진군을 재정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예산수입계획을 월별,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올해 국가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끝)

부록 5.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보고내용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보고

『조선중앙통신』, 2014년 4월 9일.

9일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서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보고를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김평해대위원이 하였다.

보고에 의하면 이번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에는 전체 선거자의 99.97%가 참가하여 해당 선거구들에 등록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들에게 찬성투표하였다.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가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철저히 준하여 실시되었으며 해당 선거구들에 등록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들이 선거자들로부터 100% 찬성투표를 받았으므로 당선된 모든 대의원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자격이 있다는것을 확인하였다.

선거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공화국정권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진정한 인민의 대표들이다.

그들가운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한 항일혁명투사들과 조국해방전쟁로병들이 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수호와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전구마다에서 빛나는 위훈을 창조하고있는 군인이 17.2%이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영웅적진군의 앞장에서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공장,기업소 로동자가 12.7%,협동농장원이 11.1%이며 녀성은 16.3%이다.

당과 정권기관,행정경제기관,근로단체,과학,교육,보건,문학예술,출판보도부문 일군들을 비롯하여 여러 부문의 우수한 일군들이 있으며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와 그 산하단체 일군들도 있다.

김일성훈장과 김일성상,김정일훈장과 김정일상을 수여받은 일군이 30.2%,공화국영웅,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은 일군이 14.6%이며 교수,박사를 비롯한 학위학직소유자들과 과학자,기술자,전문가들이 91.7%이다.

대의원들의 나이는 39살이하 3.9%,40살부터 59살까지 66.9%,60살이상 29.2%이며 대의원의 94.2%가 대학졸업정도의 지식을 소유하였다. (끝)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정세분석보고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결과 분석과 전망

통일정세분석 2014-02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전화 : 02-901-2525 팩스 : 02-901-2544
인쇄처	(주)예원기획 전화 : 02-745-8090
인쇄일	2014년 4월
발행일	2014년 4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 900-4300(代)